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홍해는 기도생활의 훈련장”

오늘 찬양예배 시 승전보고

“홍해작전을 통해 새벽기도회의 맛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홍해작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 홍해작전에 참가했던 많은 성도들이 홍해작전에서 얻은 감사를 간증한 내용들이다.

지난 25일로 20일간에 걸친 홍해작전이 모두 끝나고 주일인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승전감사예배로 드린다.

이 감사예배에서는 참모진들의 승전보고에 이어 20일 동안 이 작전을 성공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할 것을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홍해작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교회 교인들에게 단순한 연례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생활의 영적 훈련기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홍해작전에서 성도들은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주



제에 따라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 민족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동안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윤 목사는 25일 새벽 '97 홍해작전을 마무리하고 서로 승전을 축하하는 순서에서 “새벽기도를 평생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매일 새벽 교회까지 나오기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겠다는 결심을 하자”고 모든 성도들에게 제안했다.

'97 홍해작전 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정치와 경제, 사회질서, 북한 동포를 위해...
2. 서울교회 부흥을 위해
12개 교회학교, 12개 교구와 다락방의 부흥을 위해...
3.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
부모, 부부, 자녀, 형제, 일가친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농어촌 110개 교회의 부흥과 선교사역지,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해...
5. 악한 문화 추방과 크리스찬 문화 형성을 위해
퇴폐문화와 물질만능주의의 퇴치 및 기독교문화 창달을 위해...
6. 개인의 신앙부흥을 위해
말씀·기도·찬송·전도에 대한 불길이 타오르도록...
7.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성전건축허가와 민원의 해결, 기공예배와 건축일정을 위해...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확정

97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정호장로)는 이번 여름행사의 주제를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로 정하고 7-8월 중 각 교회학교별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주제 성구는 “주

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이며 주제 찬송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찬241장)이다. 또한 주요 교육내용은 ‘십계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학생들이 주제에 맞게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은 십계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칠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일정을 발표한 8개 부서 이외에도 소망부가 8월 중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탁아부에서는 7월 22일(화) 교사수련회를 가질 예정이다.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주제
유치부	이종윤 목사, 최양순 전도사	7월 17일(목)	교회당	주일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자
유년부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7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용산가족공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요
초등부	이종윤 목사, 이성득 목사	7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중등부	이종윤 목사, 민영수 목사	7월 28일(월) ~ 30일(수)	평안교회기도원(화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
고등부	이종윤 목사, 김정현 목사, 김명현 목사	8월 11일(월) ~ 13일(수)	청소년 수련의 집(홍천)	주의 계명을 내게 가르치소서
대학부	이종윤 목사, 이순환 목사, 소병근 목사, 박귀환 목사	8월 4일(월) ~ 7일(목)	노량진수양관(양수리)	주의 계명을 배우고 지키자
청년부	이종윤 목사, 김정현 목사	8월 14일(목) ~ 16일(토)	미급선교원(미급시)	청년이 무엇으로 살리까
사랑부	이종윤 목사, 김성숙 전도사	7월 24일(목)	교회당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요

창세기 강해

50장 24, 25절

요셉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매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요셉에 대해 4번만 언급되어 있습니다(요4:5, 계7:8, 히11:22, 행7:9 이하).

더욱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은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가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25절)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 미래에 임하신다 미래적인 표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1. 고난 중에 성장한 요셉의 믿음

요셉은 가장 곤고한 중에 그의 믿음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17세에 애굽에 와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93년간 애굽의 이방신과 애굽인들의 적대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기술 문화는 발달했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숭배해서 뱀이나 곤충들에게 예배했고 때로는 동물들과 성교를 함으로 예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가장 악하고 더러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던 곳이 당시의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의 풍습, 특히 이러한 종교 행위가 있을 때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매우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환경에 살았던 요셉은 단 한 번도 신앙적인 타협을 하거나 굴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2. 믿음으로 희망을 본 요셉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희망은 있는 법입니다. 요셉은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의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캄캄한 동굴에 빠진 사람과 같이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남의 짐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희망의 줄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은 임종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임종 시에 한 말이 대부분 과거에 관한 말이라면 요셉은 거의 미래사를 말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해주었지만 거의가 과거사를 들추어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소원하여 요셉에게 이 일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



이종운 목사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창 50:24 - 25)

요셉은 먼 미래를 보며 자기 백성들이 앞으로 고난받을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체가 잠시 애굽에 있으나 언젠가는 가나안에 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찌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창 15:13 - 14).

이 계시의 말씀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에게서 요

셉에게 전해졌습니다. 요셉은 장차 자기 후손에게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미래를 말했다고 해서 현재를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후손들에게 어두움의 날이 임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날 또한 올 것을 믿었습니다. 400년 동안 요셉의 시체는 애굽에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가나안에 자기가 묻히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자손에게 약속한대로 그 뼈를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겔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고향에 묻히기를 소원한 것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3. 순례자의 삶을 산 요셉

순례자는 여행하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영원한 처소로 보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93년 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애굽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지만 임종 시에 자기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고 한 말로 보아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비록 애굽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그 곳은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항상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도시의 영화를 봤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고산지대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이삭은 남쪽 비옥한 땅으로, 야곱은 헤브론으로 갔지만 그들은 그 땅의 거민과 혼합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으면서 완전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몸은 비록 애굽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바랐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요셉은 성도의 모델이며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진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바라면서 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97홍해작전을 마치고

서울의 '여호수아'

SEOUL JOSHUA

오승민(집사, 찬양대원)

이번 홍해작전은 여호수아서를 본문으로 여호수아가 치른 수많은 전투가 등장하며 가나안 정복사를 다루었기에 그야말로 '작전'이라는 말이 더욱 실감났다. 우리가 일반적 전쟁사를 통해 현재의 삶에 교훈을 얻고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같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승리의 이야기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다.

새벽 설교시간에 말씀 중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과 사건들에 나 자신을 대입해 보았다. '나는 과연... 가나안 정탐꾼이었다면 내 스스로를 매꾸기 같다고 느꼈을까, 아니면 그들을 밥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 '나는 과연... 기생 라합처럼 여호와와 행하신 일을

듣고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주신 줄을 알아차릴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게는 좋은 것을 보고 탐하여 취한 아간의 욕심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행할 것을 묻지 않고 행했다가 기브온 거민에게 속는 우를 범치는 아니할까?', '강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헤브론 땅을 원하는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도전의식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바라보면 부끄러움만 가득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거민같은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택하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늘 감사드린다.

그리고 전투 중에 옆을 보노라면 내 곁에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전우(戰友)로 함께 있음이 감사하다. 또 우리 앞에는 우리보다 더욱 분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그 든든함을 인해 감사한다. 최선봉에는 전쟁에 능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늘 이기시는 우리의 깃발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심을 감사, 감사드린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분의 말씀이 생각난다. 강단을 통해 늘 좋은 꿀, 능력의 말씀을 받고 있기에...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많은 사명이 많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행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믿음과 전적인 순종으로 나도 충성하기를 다짐한다. 주님께 받은 기업을 소유하고 풍성히 누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될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고 싶다.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 도구로서 끝까지 쓰임을 받고 끝까지 칭찬받는 주님의 군병이 되기를 다짐해 본다.

'97홍해작전 참가기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왔습니다"

정정숙(집사, 찬양대원)

청소년들이 새벽을 깨우며 아직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설 즈음 목동,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광명, 부천, 인천, 안산, 서화에 있는 우리 6교구 형제들은 홍해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분주했다. 거리가 멀어서 갖게 되는 부담감에도 굴하지 않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 6교구 형제들은 이번 홍해작전을 유격훈련을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참여하기로 다짐했었다. 이제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오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하며 감사드린다.

교회설립 초기에 6교구 방향에는 구역식구들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몇몇 교구 식구들의 뜨거운 기도 속에서 지금은 교구가 성장해서 많은 식구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다락방의 부흥을 위해 모두들 그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던가? 이미 고인이 되신 장미산 권사님과 많은 지역장들, 다락방장들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구역을 위해 무릎을 꿇는 기도의 어머니들이다.

내가 속해 있는 목동 다락방에서는 이번 홍해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김원웅·김규희 집사 두 부부가 미리 각 가정에서 전화로 연락을 해서 깨우고 4시, 4시 15분, 4시 20분에 각각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달려왔다.

연일 계속된 행진 속에서 육신은 연약하여 피곤할 때도 없지 않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피곤해 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차 안에서 찬송을 부르곤 했다. "매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찬송가 446장 가사처럼 이번 홍해작전은 우리 모두에겐 샘솟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 체험적 기도의 시간이었다.

특별히 이번 홍해작전에선 더욱 포괄적이고 확장된 기도제목이 있어서 좋았다. 새벽마다 개인의 기도제목을 벗어나 교회와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연상했었다.

나는 우리 6교구 식구들이 다른 교구 형제들에 비해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형제들임을

자부하고 싶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런지 모르지만 우리 6교구 식구들은 이번처럼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싶다. 그래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일'에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기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

✧ 순례자 컬럼 ✧

신본주의

"내가 죽은 후에는 내가 믿었던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만 말해 달라"고 유언한 윌리엄 케리 선교사의 말은 지금도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말이다. 장로교회의 창설자인 요한 칼빈도 나를 위해서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신앙고백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다.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고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러나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종교다.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사상으로 이해할 때 그를 바르게 볼 수 있을 것이며 믿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오늘 교사대학 강좌 ㉔

7·8월엔 휴강

오늘 II부 예배 후 교사대학 여섯번째 강의가 실시된다.

오늘의 강의는 “교회학교 부흥의 실제”로 강사는 주선에 교수(장신대)이다.

교사대학에서는 지난 1월에 개강한 이래 “서울교회 교육방향”(박귀환 목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육원리”(고용수 교수), “교사 지도력 개발”(장종철 교수), “교수 학습 방법론”(박원호 교수), “효과적인 반 운영”(홍정근 목사) 등 교회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왔다.

매월 마지막 주에 실시하던 교사대학 강좌는 방학과 휴가기간을 이용해 각 부서에서 여름행사를 갖는 7월과 8월 두 달 간은 강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강좌는 9월 마지막 중에 있게 된다.

'97 농촌전도단원 모집

전도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장로)에서는 '97 농촌전도단을 파송키로 하고 전도단원을 모집한다.

농촌전도단은 7월 29일(화) ~ 8월 1일(금), 3박 4일간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신석교회(김진수 목사)를 중심으로 축호전도, 성경학교 개회, 지역봉사활동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7월 13일(주일)까지이며 농촌전도단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이나 전도위원회로 하면 된다.

'97 하반기 장학생 선발

장학위원회(위원장 윤봉준 장로)에서는 '97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회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교회 내 학생과 교회주변 극빈자 가정의 학생,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마감은 7월 30일까지이다. 자세한 문의는 교구담당교역자나 교회학교 지도교역자에게 하면 된다.

교역자 연락처 변경

교역자 호출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교역자	전화번호	호출기번호
이순환	3452 - 8856	015 - 8397 - 3971
김명현	3443 - 4082	015 - 8397 - 3972
박귀환	242 - 8407	015 - 8397 - 3973
이성득	242 - 8408	015 - 9397 - 3974
민영수	563 - 0392	015 - 8397 - 3975
김정현	566 - 0391	015 - 8397 - 3976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6월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새가족은 인도자와 함께
예배 전, 환영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6월의 새가족 *

주남식 이종문 정재형 권혜란 박노기
오한실 이정자 이경구 이채봉 신기만
김현삼 김동욱 서태복 최현복 이관수
신금채 전영미 정치은 이준만 윤명희
현은경 최운호 임현우 박원규 황정화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 - 성찬식 거행

다음 주일(7월 6일)은 '97맥추감사절로 지킨다.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 낮 I·II·III부 예배 시에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교회학교별로 집회시간에 축하행사를 갖고, 저녁 찬양예배시간에는 타악·유치·유년·초등부가 준비한 감사절 축하행사를 갖는다.

◇ 맥추감사절은? 맥추절(출23:16)은 유월절(레23:5~8), 초막절(레23:34~44)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밀과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들고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날로 삼았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로도 불리우는 이날은 무교절,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50일째되는 날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현대의 도시인에게 있어서 밀과 보리의 추수는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어서 맥추감사절의 중요성을 간파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고, 특별히 1997년도 6개월 동안 우리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을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정

- * 이종운목사는 6월 30일(월) 선명회에서 설교하고 7월 3일(목) 총회 주재 위원회와 세계대학총장협의회(IAUP)에 참여한다.
- * 김상철장로는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한반도 안보세미나를 하고 뉴욕 126기도회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31일(화)귀국한다.
- * 이번 주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홍성기·장동임집사 가정에서 제공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2. 각 부서 여름행사 준비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3.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